

주민등록인구 20만시대 연다

시는 2003년 12월 31현재의 인구 193천명에서 오는 7월까지 20만인구를 목표로 각급대학교와 기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인구 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산신도시 건설과 함께 현재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추세로 머지 않아 20만인구 달성이 확실하지만 보다 빨리 20만인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급대학교 기숙사에 기거하는 외지 학생과 대기업의 외지 거주 직원, 천안시계에 위치한 배방면의 주민등록 미이전 거주자들에게 아산 시로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산시민이 되면, One-Stop출장전입 서비스 인센티브 방법도 고려

또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도 함께 추진키로 하고 시와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특려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One-Stop출장전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입시 읍면동사무소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해 준다.



고속철도 개통이 오는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시에서는 고속철도개통준비단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 실과 7개분야의 준비팀을 구성하는등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7개분야별로 구성된 준비팀에서는 ▲시정홍보·공보체육과 ▲관광홍보·문화관광과 ▲도로기반시설·신도시개발지원단 ▲도로표지관·건설과 ▲대중교통이용·교통행정과 ▲서비스업체·사회복지과 ▲역사주변환경·환경보호과, 주민자치과가 역할을 분담하여 문제점의 사전 파악, 대처등 고속철 개통에 대비 완벽한 준비를 다짐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역사진입

배방면도 머지않아 읍승격

생산라인 증가에 따라 근무직원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시장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자리잡고 있는 배방면의 경우 현재 인구가 1만 9천 2백여명으로 7백여명만 늘어날 경우 읍승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수증가 등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한편 신규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이나 기업체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는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기숙사, 사택 등에 대대적인 인구 전입을 유도해 나

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이전에 적극 동참하거나 성공적인 인구유입에 참여한 공동주택, 각급 대학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아산시의 위상제고와 지역발전 가속화

인구 20만 규모의 시로 확장되면 1인당 12만원이 교부되는 정부 교부금의 대폭적인 증액효과로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도 한층 높일 수 있고 행정기구의 확대로 시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속철개통계기로, 주민의식 전환

부시장 단장으로 7개분야 고속철도 개통 준비팀 가동

로는 고속철도관리공단과 충청남도, 고속철도역과 국도21호구간까지 셔틀버스 운행등 시외버스 운행체계 조정은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이 그리고 장항선 철도 안전대책은 철도청, 국도관리청, 역사편의시설을 고속철도공단과 협의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에서는 4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역에서 34분 거리에 있는 우리시가 주5일근무제시행과 때를 같이하여 외부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등 파급효과를 얻는데도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외부 관광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대중교통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내집을 찾아온 손님을 맞이 하듯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관광객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친절자세가 몸에 배도록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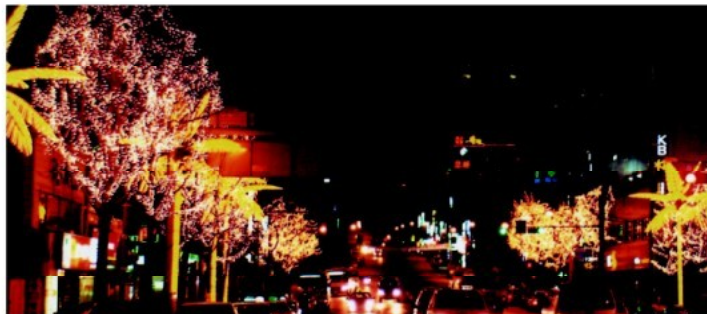
계획이다.

또한 외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음식점, 숙박업소등 서비스 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공손한 언어와 친절한 자세에 정성을 담아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에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지방자치의 주인
- 주인이 베풀어야 손님이 찾아온다
지속적인 교육 통해 친절과 정성으로
관광객을 감동시킨다.

시는 이와 같은 계획을 시행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시민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지금은 온천관광지로서의 옛명성을 되찾고 전국적인 관광지로 급부상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의식 전환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며 주인이 친절과 정성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아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불려와 죄를 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화려하게 단장한 아산시 야경 -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 조명

인구	193,122명
세대	73,498세대
자동차	64,847대
1월호 지면안내	<div> <div>2면</div> <div>시정종합</div> </div> <div> <div>3면</div> <div>새해정책</div> </div> <div> <div>4면</div> <div>시정종합</div> </div> <div> <div>5면</div> <div>시정종합</div> </div> <div> <div>6면</div> <div>2003년 시정정책</div> </div> <div> <div>7면</div> <div>시정종합</div> </div> <div> <div>8면</div> <div>문화종합</div> </div>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상습정체구간 해소



시에서는 중부권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하고 천안-온양간 21호 국도에 8차선 확·포장 공사를 국도 우회대체도, 군도,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대폭적인 확·포장 공사를 시행한다. 특히 도로건설 사업은 도시미관을 고려하면서 동서남북의 그물형 간선도로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교통·물류비용의

절감, 증폭되는 교통수요 대처, 지역간 접근성 향상시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상습 정체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외에도 수도권전철을 도고원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장항선폐철도부지 활용방안 협의 등을 위해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도로망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 물걱정 없앤다

■ 상수도 사업에 따른 급수 지역

급수구역	급수지역
봉화급수구역	송악면 : 역촌, 평촌, 외암리 동지역 : 장춘, 동기, 남동
용화급수구신도시 급수구역	탕정면 : 동산1, 호산1-3, 갈산리 음봉면 : 신정, 쌍룡, 월랑, 산동리
둔포급수구역	염치읍 : 산양, 강창, 서원, 중방, 백암1-3, 대동리 둔포면 : 신법, 신남, 백석포, 구성, 외우, 창용1, 신봉1, 신화리
인주급수구역	인주면 : 공세, 밀두, 문방, 금성, 해암, 관암리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식수의 계산을 위해 깨끗이 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전력을 다할 계획으로 중·소도시형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과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을 설치한다.

수원이 부족한 영인·인주지역에 올해부터 중소도시형 상수도공급공사에 들어가고 남동·풍기동 일원, 장춘동에 건설되고 있는 청송 아파트를 4개 급수지역으로 나누어 내내적인 상수도 공급 공사도 시행한다.

중소도시형 상수도사업과 농어촌 상수도 설치사업, 기타 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17개 읍·면·동지역 63,000명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 될 것으로 전망 된다.

■ 도로망구축사업 계획

도로사업명	위 치	사업량	비 고
국도21호 8차선화 도로 확·포장	천안~온양	L=9.66 km	실시설계 용역 완료
국도43호 4-6차선 확·포장	둔포~음봉~탕정	L=26.7 km	타당성 조사
국도39호 4차선 확·포장	아산~유구	L=22 km	읍·면·동·구간공사중, 지방적 설계중
국도45호 4차선 확·포장	아산~둔포	L=15.4 km	공사중
국도34호 4차선 확·포장	문포~쌍환	L=8.9 km	
4차선 도로 신설	행북~중방	L=5.7 km	
	남동~행북	L=12.7 km	
	배방~탕정	L=4.9 km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선유대교~염치~음봉	L=15.8 km	실시설계 완료
628·624호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음봉노선, 탕정노선	L=8.5 km	사업착수 및 실시설계
신정호 순환도로개설	신정호주변	L=2.1 km	4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
경찰청합동국 진입 연결도로	용화동~경찰교목원	L=3.9 km	3월 공사착공, 12월 준공 예정
북부외곽도로개설	중무교~봉강교	L=3.9 km	포장 및 교량상부, 계획공정 60%
현충로개설	용화동~꽃기동	L=1.67 km	9월 준공 예정
군도 3호 확·포장	모동동~현충사	L=2.47 km	주민설명회 및 보상, 계획공정 10%
군도 15호 4차선 확·포장	탕정~음봉	L=2.64 km	
군도 7호 확·포장	풍세~모산	L=1.56 km	실시설계 중
군도 24호 확·포장	강당~평촌	L=4.9 km	실시설계 중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신유~쌍용	L=1.27 km	실시설계 중
농어촌 도로 신설	구성~신봉	L=2.26 km	
	역리~성내	L=2.40 km	
농어촌 도로 신설	신양~산향	L=0.8 km	실시설계 중
	신성~신창	L=1.27 km	실시설계 중

온양문화제 명칭변경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로

성웅 이순신의 탄신을 기념하는 제40회 4.26온양문화제가 올해부터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되어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이미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전국규모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준비가 한창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온양문화제 라는 명칭이 지역만을 대표 할뿐 이충무공 탄신기념이라는 축제 본래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여론과 학술연구에서도 축제개최이 목적이 아닌 지명에서 명칭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아산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개정을 통해 금년부터 새로운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로 명칭을 변경, 사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넓은 행사장소 확보와 축제 의미의 연계성, 도심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현충사와 국곡천변을 활용하면서 축제기간도 3일간에서 5일간(4.24 - 4.28)으로 늘려 개최한다.

이와 함께 해군들 관련기관과 관내 유관기관, 단체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서비업체와 대중교통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

객이 불편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가지정문화제로 선정된후 개최되는 첫 번째 해인만큼 내실있고 격조 높은 전국 규모의 축제 로 구성하여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함께 이루는 문화축제로 인드리는 계획이다.

시에서는 이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힘을 강조하면서 고속철도의 4월 개통과 연계하여 관광아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하여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 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와 관련하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에 따른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및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아 래-

구 분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연서주민수	비 고
아산시	141,253	3,300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 실버합주단원 모집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유익한 여가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버합창단(가칭)을 창립하기로 하고 우리지역에 음악애호가 중 뜻이 있는 단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인원 : 〇〇명
- 모집기간 : 2004. 1.10 ~ 1.31(22일간)
- 모집대상 :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악보를 읽을 수 있는 55세이상 아산시민 누구나
- 연 락 처 :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 (전화 544-1401)
- 기 타 : 자기악기 소유자 특별 환영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

“아산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하자”

장학생 18명에게 2,700만원 지급 예정

시에서는 관내 고등학교학생과 2004년도 입학예정인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18명을 아산시내고향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인당 150만원씩 총 2,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장학금 대상 18명은 온양고교 4명, 아산고교 4명, 온양여고 4명, 한울고교 4명, 둔포고교 1명과 추가선발 1명으로 각 학교별로 안내 했으며 13일까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접수한 학생중에서 선발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은 아산시에 1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자이어야 하며 전체 석차의 3퍼센트 이내의 우수한 학생

자를 갖춰야 된다.

접수된 신청서중 아산시내고향장학회의 심의에서 대상자를 선발 확정하며 별도의 계획에 외거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다. 심의 결과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행실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추천하고 타기관이나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아산시내고향장학회는 1998년도 아산시를 선양하고 아산시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어 2003년도까지 학업우수학생 1,180명에게 718,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이렇게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치면서 2003년도에 유치한 충남 유일의 충남외국어고등학교를 지역 명문고로 육성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발시켜 우리지역 다른 학교와 함께 교육향상을 이끌어 나 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아산은 학업을 위해 타지역 명문고를 찾아 떠나는 과거의 교육여건에서 타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지역으로의 전입을 시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 할 계획이다.

편안한 설명절, 푸근한 고향정취 만끽토록

취약시설 안전점검, 물가 안정, 원활한 교통대책마련



시에서는 우리 고유의 최대명절 설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속에서 고향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동안(1. 21 ~ 1.

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아울러 설명절 성수품의 수급상황,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동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로 물가 안정과 건전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설명절을 통한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행위는 강력 단속하고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확대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급급, 1339응급환자 정보센터를 연계 긴급수송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소외된 이웃도 돌보고, 훈훈한 고향에서 편안한 휴식을

설 연휴 응급환자는 1339 창구결집민원 종합민원실

주민생활화와 가장 밀접한 상수도, 쓰레기수거, 의료, 보건분야는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각종 창구 결집민원은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말뚝이 가동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들이 순번제로 근무하여 응급환자진료 및 안내가 가능하고 119구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생활 주변의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위로,봉사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사회단체들과 연계, 자율적인 자원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유지나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 고향의 불우시설, 실직지킴이로 및 격려를 통한 후원활동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동안 고향을 찾는 「귀향손님 정갈있게 맞이하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기차역, 버스 터미널, 마을입구등에 환영현수막을 게첨하고 내 고향 스시를 홍보하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내 집 앞 내기 쓸면 귀향객이 편안하게 머물러 갑니다

새해설계, ‘시민과 대화’로 시작한다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현안사업 등 해결방안 모색

강희복 아산시장은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시장방향을 널리 알리고 20만 시민의 신랄한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1월 29일 열침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대화를 갖는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무에 전념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사업장도 방문하여 지역별 동향과 현안사업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원탁형식으로 좌석을 배열하여 사람반 좌담회 방법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리를 직접 듣고자 예년과 달리 초청받은 시민 외에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초청주민도 농민, 주부, 학생, 장애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시장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선정할 계획이며 주민여론 형성충돌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을 초청,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 밀접한 업무담당 국장 및 실·과장들을 배석시켜 소관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즉시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총무과 시장담당 540-2236)

■ 시민과의 대화 일정

일 자	시민과의 대화 대상지	
	오 전	오 후
1월 29일(목)	열침읍	탕정면
1월 30일(금)	배방면	송악면
1월 31일(토)	신장면	
2월 2일(월)	음봉면	둔포면
2월 3일(화)	영인면	인주면
2월 4일(수)	선장면	도고면
2월 5일(목)	온양1동	온양2동
2월 6일(금)	온양3동	온양4동
2월 7일(토)	온양5동	
2월 9일(월)	온양6동	

2004년 주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보

- ▶교육장소: 아산시청 전산교육장(지하1층) -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 ▶정원 - 40명 ▶대상 - 노인, 주부, 농민 등 정보소외 계층, 아산시민
- ▶신청기간: 수시신청 (단, 모든 과정은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총무과 전산기획담당 ☎540-2462

컴퓨터 첫걸음				한글97					
컴퓨터 입문과정	제 1기	22-26	0900~1200	문서작성, 편집 워드프로세서 기능익히기	제 1기	29-32	1400~1700		
	제 2기	412-416	1400~1700		제 2기	315-326	1400~1700		
	제 3기	517-521	1400~1700		제 3기	517-528	0900~1200		
	제 4기	75-79	0900~1200		제 4기	621-72	0900~1200		
	제 5기	96-910	1400~1700		제 5기	712-723	1400~1700		
	제 6기	111-115	1400~1700		제 6기	823-93	0900~1200		
인터넷 활용				엑셀2000					
인터넷 여행	제 1기	22-26	1400~1700	간단한 표작성 및 수치계산	제 1기	315-326	0900~1200		
	제 2기	223-227	1400~1700		제 2기	67-618	1400~1700		
	제 3기	38-312	1400~1700		제 3기	913-924	0900~1200		
	제 4기	412-416	0900~1200		제 4기	1025-115	0900~1200		
	제 5기	524-528	1400~1700	포토샵	이미지 및 사진편집	제 1기	419-423	0900~1200	
	제 6기	531-64	0900~1200			제 2기	621-625	1400~1700	
	제 7기	75-79	1400~1700			제 3기	96-910	0900~1200	
	제 8기	1018-1022	0900~1200			제 4기	1011-1015	0900~1200	
컴퓨터기초				워드포인트 2000					
윈도우 98, 한글97, 인터넷	제 1기	29-220	0900~1200	프리젠테이션	제 1기	32-35	1400~1700		
	제 2기	32-312	0900~1200		제 2기	368-430	1400~1700		
	제 3기	419-430	1400~1700		제 3기	428-72	1400~1700		
	제 4기	53-514	1400~1700		제 4기	104-108	0900~1200		
	제 5기	67-618	0900~1200		홈페이지 만들기	나옴로 홈페이지 만들기	제 1기	53-514	0900~1200
	제 6기	712-723	0900~1200				제 2기	1018-1023	1400~1700
제 7기	823-93	1400~1700	제 3기	1118-1119			0900~1200		
제 8기	908-909	1400~1700							
제 9기	104-105	1400~1700							
제 10기	118-119	1400~1700							
제 11기	1122-123	0900~1200							

올해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억원)



■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억원)

계	상수도	공영사업	하수도	의료보호	구획정리	테크노캠퍼스	기타
1365	192	864	84	8	148	21	48

시는 2004년 44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새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새살림의 세출부분을 사업예산에 중점 배정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에 주력하고 향상된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 투자 한다는 계획입니다.

2004년 세출예산 분포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은 재무상환액이 3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건전한 재정계획으로 시가 추구하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와 채무없는 시 만들기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열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 “시민에게 감동으로”



새해 벽두부터 곡교천과 신정호, 남산의 미를 살린 균형과 조화를 갖춘 개발을 위해 곳곳을 다니며 점검하고 지시하고, 구상안을 요구한 강회복 아산시장은 열정어린 강행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2일 사무실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표명하면서 실과장과 실무자, 전문교수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곡교천 사업현장의 현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특히 아산대학교에서 배방면 천안시계에 이르는 12km를 도보로 강행군

하면서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지시하는 등 곡교천의 종합정비에 나선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우리시민이 갖는 특색있는 곡교천 개발이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또한 3일에는 신정호와 남산을 둘러보면서 경찰종합학교와 신정호를 연계 개발하여 호수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화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주문했다.

아산신도시, ‘첨단복합도시’로

서울 30분대, 고속철역 배후신도시개발 확정,
2005년 주택분양시작

건설교통부는 1월 9일 아산대방시주의 1단계 택지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886만평중 1단계로 107만평에 주택7,780호, 인구 24천명을 수용하는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운양온천)배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배방면과 탕정면 일원에 조성되는 배방지구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운양온천)과 장항선 장재역이 위치하며 2006년에는 수도권전철이 운행되어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4월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로는 서울역까지 34분이 소요돼 접근성도 임지여건이 매우 뛰어나 복잡한 서울 외곽지역 보다도 출퇴근이 용이할 것으로 분석되어 수도권으로 부터의 인구 유입도 예상된다.

또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아산신도시 시민들에게 서울고속철도 운영, 가격적인 요금 할인 혜택 등 부수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성공적인 아산신도시 건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 환경친화적 전원도시로 개발

1단계는 아산 신도시의 택지조성 방침은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 환경친화적 전원도시로 건설하여 2005년 9월부터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로 개발은 역세권

장기적으로는 선문대와 이천을 희망하는 대학 및 현재 조성중인 탕정 테크노캠퍼스들을 연계시켜 산·학·연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1단계에 2만평, 2단계 37만평의 부지공급협약이 체결돼 있다.

환경친화적 전원도시조성계획은 택지지구 중앙의 녹지축과 장재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연형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중앙 산림의 원형 보존으로 시설공원화와

장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재정비하여 장재천변에 16천평의 인공호수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속철도 역시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하여 장재천변 호수공원과 연계토록 하고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문화행사를 접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익한憩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고 국립특수학교교육원, 사학연금관리공단, 교육청도건설공단농수도권 소재 일부 공공기관·대학·첨단산업시설등의 이전을 추진한다.

주택7,780호건설, 2005년 주택분양 시작 인구24천명 신도시

1단계 주택 건설계획은 총 107만평의 부지에 7,780호 주택을 건설하고 인구 24천명을 수용하며 2005년 9월부터 주택분양을 시작하여 2007년에는 입주자가 가능토록 계획돼 있다.

총7,780호 주택 건설계획에는 공동주택 5,446호, 주상복합1,487호, 단독주택 847호이며 특히 공동주택중 1,726호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된다.

이렇게 되면 매년 2.44%씩 증가하는 4,500명의 인구를 흡수 할 수 있어 인구밀도 68인/ha를 유지토록 하고 이는 타지역(분당 198, 일산175, 대진서남부113)에 비해 탁월한 주택여건을 아산신도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아산신도시 토지이용계획

곡교천과 신정호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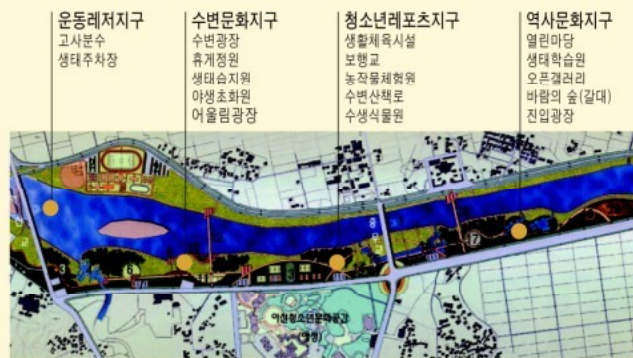
시는 우리시가 갖고있는 풍부한 수(水)자원인 곡교천과 신정호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곡교천을 종합개발하여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로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체육·휴식 등 다목적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운동레저지구, 수변문화지구, 청소년레포츠단지, 역사문화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곡교천을 끼고 가족, 연인과 함께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 자연과 함께 함께 달릴수 있는 마라톤 코스 등으로 건설하여 인간화 청소년 문화공간과 연계, 테마공원으로 조성된다

신정호 종합개발은 송악저수지 일영수 450만톤을 유입시켜 향상된 수질을 이용하여 호수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름답고 정겨운 우리시만의 독특한 이미지가 호수공원이 만들어지면 신정호와 인접한 경향종합학교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憩터로서의 역할을 특목히 해 넓게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곡교천 종합개발계획 조감도

정월대보름, '달맞이굿' 영인에서 막오른다

지역어르신 고증한 지신밟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영인면 신봉2리 일원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004년 2월 4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주민과 관광객 등 15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인 한트 축제 달맞이굿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철저한 고증에 의해 만들어진 민속놀이 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지역주민과 관내 기관 단체등의 협조로 2001년부터 매년 정월대보름에 행해진다.

올해에는 지신밟기와 연날리기, 고사덕담,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강강술래를 재현할 계획으로 지신밟기는 마을어귀·성황당·당산나무 강등우물 거점순으로 축연축수, 고사덕담

과 함께 이뤄진다.

또한 쥐불놀이는 타오르는 장작불에서 참가자가 각자의 망우리에 불나무를 넣고 돌리며 달집에 옮겨 붙게 한 뒤 가뽏이 소리가 난 한지를 소지하고 소원을 비는 달집태우기로 연결된다.

달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행사 참가자 전원이 어우러져 뿔다리밟기, 꼬리따기, 청어여기아 쫓기 등을 진행하여 행사가 절정에 오르게 되고 이후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난장을 펼친다.

매년 이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역 젊은이들은 함께 나누고 즐기며 기원하면서 민족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민족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고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되살려 낸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다.

아울러 지역어르신께 함께 하는 사회, 더 밝아 가는 훈훈한 사회기풍의 기쁨을 받아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아산 북부일원의 새로운 문화적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을 담당해 왔다.

신정호관광지 얼음조각공원 조성

설연휴 신정호 관광지 얼음조형물 구경으세요

아산시에서는 지난 14일 신정호 관광지 조각공원내에 500여만원을 들여 폭 8m, 높이 3m의 대형얼음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겨울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을 찾은 한 시민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장소로 최고라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신정호 관광지를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산불예방 환경보호의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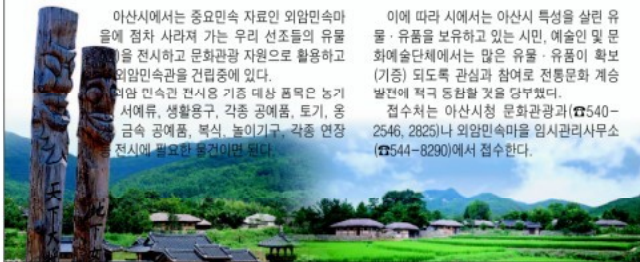


산림은 대대손손 물려줄 우리의 가장 가치있는 재산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숲! 한번의 작은 실수는 온 국민의 후회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충실히 지켜 나갑시다.

- 산행시에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취급물을 휴대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휴연을 하지 않습니다.
-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논이나 밭두렁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 산물 발견시는 즉시 119 또는 시청, 산림관련 부서로 신고 합니다.
- 폐쇄된 등산로나 출입이 금지된 산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외암민속관 유물·유품 기증 받는다



아산시에서는 중요민속 자료인 외암민속마을에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선조들의 유물을 전시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외암민속관을 건립중에 있다.

외암 민속관 전시를 기증 대상 품목은 농기, 서예류, 생활용품, 각종 공예품, 토기, 용, 금속 공예품, 복식, 놀이기구, 각종 연장 전시에 필요한 물건이면 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아산시 특성을 살린 유물·유품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많은 유물·유품이 확보(기증) 되도록 관심과 참여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접수처는 아산시청 문화관광과(☎540-2546, 2825)나 외암민속마을 임시관리사무소(☎544-8290)에서 접수한다.

2003년 시정을 돌아본다(3)

‘환경·교육·지역경제·사회보건복지’의
작년한해의 분야별 핵심사안과 정책을 정리해본다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 도고비위생매립장 정비후 공원화 모습

환경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에 있다. 2003년은 생활쓰레기처리시설 건립의 기틀을 마련한 해로 기초시설이 들어 설 입지를 공개모집하여 회양지역 3곳(도고면 와산1,2구, 온양동 신동)이 신청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시가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여 실천하고 얻은 결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3곳 신청 받아, 2004년 8월까지 후보지 확정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 3곳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모든 진행과정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시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대로 최첨단의 기술집약적시설로 건립해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직매립해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비위생매립장 6곳(도고 신리, 인주 갈매리, 모종동, 영인 월선리, 배방 구령리, 둔포 관대리)을 국비 지원 45여억원을 받아 정비한다.

2003년도 1차 정비사업으로 인주 갈매리가 2004년 1월중 완료예정이고 도고 신리리는 2004년 상반기중 완전 정비하며 제2차 정비사업은 2004년도(모종동, 영인 월선리), 제3차는 2005년도(배방, 둔포) 등 연차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도고 비위생매립장은 기 정비된 지역에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메타스퀘어 등 나무를 식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했으며 금반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곳에도 체육시설, 산책로 등의 쾌적한 쉼터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에 하나뿐인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유치

교육분야의 성과중 성과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의 확정이다.

2004년도 128억6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2005년 3월개교를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완료했으며 영어와 독일어, 일본어, 불어, 중국어의 5개학과 6학년 180명을 모집하여 총18학급 540명 규모의 남·녀공학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21세기형 첨단산업도시,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시의 밑거름이 될 인적자원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성화된 명문고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04년도 권곡초등학교와 용화중학교가 개교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 될 전망이다. 시 정책적인 교육여건개선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은양4동에 30억급 규모의 신장중학교 신설을 위한 2004년도 교부예산이 159억9100만원이 편성됐으며 방축동 동아아파트 뒤편에 36학급 규모의 온양신정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신설 예산도 117억2500만원이 편성돼 시의 교육여건개선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한편 우수한 학생의 외부 학교로의 유출을 막고 인재양성을 위해 아산시내교향학회를 운영해 2003년까지 1,180명에게 718백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아산신민장학회 설립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지역경제 이끌어갈 최첨단 산업도시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기업 유치, 취업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인구 지방산업단지의 활발한 분업으로 2003년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업의 유치 실적면에서 보면 4년동안의 기업유치 588개업체, 공장용지 분양면적 321만9000㎡, 고용인원1만464명으로 충청남도내 1위에 랭크 됐으며 이들 기업유치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최첨단 수출 전략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TFT-LCD 공장이 세계최대 규모로 탄생 태극노관플렉스 지방산업단지에 입주, 2003년 10월30일 기공식을 가졌다.

또한 이 공장이 준공되어 정상 가동되면 연간 300-500억원이상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2만여명 이상의 신규고용창출도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산에 세계최대 최첨단 TFT-LCD 공장 입주

인주지방산업단지는 협동화단지를 10개업체에 40,000평을 131억3천6백만원에 계약하는 등 분야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연계하여 현저한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한 입주대상업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2003년 11월 13일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인력채용 기회제공에 노력한 결과 40개업체에 158명을 연결해 주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도고면 금산리와 신리리 일원에 13만5천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경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2006년 조성이 완료되면 1천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이 연간 150억 원 이상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 실현



▲ 제1기 주부대학 수료식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해로 자활우수기관 지정, 전국보건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가족보건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등 전국규모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 받았다.

크게는 아산시노인복지관을 준공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토록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웃음과 기쁨을 되찾아 주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주부대학을 활성화 하고자 아파트 단지들에 찾아 가는 주부대학강좌 개설(배방동 3개소), 운영하여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고 보육시설내에 도서관 보급할 계획도 마련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 사회의 동반자로 참여토록 하는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연말 연시 대대적인 어려운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새해 각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적용되어 우리 생활도 많이 달라진다. 시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 알기쉽게 정리한 책자 1,200부를 만들어 주민에게 배부했다.
일반시민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책자의 내용 세제, 교육, 복지, 교통, 문화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생활에 응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교육

- 제7차교육과정 전면시행=시행대상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 주5일 수업 확대=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현재 26개교에서 전국 1024개교로 늘어난다.
-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3학년생까지 확대 시행된다.
-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만 3~4살 어린이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한다.



복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계비 지원 확대=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지원이 월 최고 89만7천원에서 92만9천원으로 늘어난다.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차상위 계층과 차차상 위계층의 보육료 지원대상이 11만9천명에서 18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지원액도 2003년 12만5천~24만2천원에서 13만2천~25만7천원으로 오른다. (보건의료)
- 저소득층 회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만성신부전증을 포함한 8개 질환에서 유전성분당설조증, 부신백질아염양증, 페르리브 등 3종이 추가로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민원

-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확대=현행 토지·임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등 9가지에 주민등록등본·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관리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 정중명 등 6가지가 추가된다.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공무원 토요휴무제 확대=월 1회에서 7월부터 월 2회로 확대하고 토요일 무보급무근무제 폐지된다. 2005년 7월부터는 공무원 주5일근무제 전면 실시한다.



교통

- 승객의 소란행위 방지운전차 처벌강화=3월부터 차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소란을 끼우는 승객을 방지한 운전자의 면허를 40일 정

- 지시키고, 방치금도 현행 5만원에서 방치금으로 인상된다.
- 무인장비로 주·정차위반차량 단속=7월부터 인력에 의한 단속 이외에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도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 자동차 전국번호판 시행=자동차 번호판에 시·도 구분이 폐지되고 전국단위로 관리해 주소변경 때 별도의 신고나 번호판 교체 없이 필요없게 된다.



여성

- 육아휴직급여 인상=직장여성의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장려금도 종전 월 20만원에서 10만~1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 여성공무원 채용 늘어=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이 지난해 국가공무원 7.5%, 지방공무원 6.9%에서 국가 8.7%, 지방 7.8%로 높아진다.



문화

-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부분개방 대상이던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이 전면 개방된다.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산 등의 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을 물리지 않는다.
-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13~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증 발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어업

- 고흥농업경영 경영이양 지원제 실시=만 65~69살의 고령 농민이 비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살이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천원의 작물금을 지급받는다.
- 쌀 도매장 표시 강화=포장 판매되는 쌀의 품종과 도정날짜 표시가 의무화된다.
- 수산물 실명제 실시=수도관선지(가리, 노랑민,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에는 생산지, 출하주 이름 및 연락처 등이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부동산세제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서울과 과천,

-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5개 재도시 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집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현행 36%에서 6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0~36%에서 40%로, 미등기 양도는 60%에서 70%로 높아진다.
- 아파트 재산세 인상=아파트 재산세에 시가가 반영돼 국제정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는 20~30% 정도 오르고, 특히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5~6배 인상된다.
- 종합소득세 인상=양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과표 연실화율이 올해 전국 평균 36.1%에서 내년에는 39.1%로 3%포인트 높아져 10월에 부과되는 종로세부터 적용된다.
- 상속·증여세 원천포괄주의 도입=유·무형 또는 직·간접 등 형식을 불문하고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법에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 저소득층 근로자 근로소득세 경감=연간 급여 500만~1500만원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높아지고, 산출 세액이 5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50%에서 55%로 높아진다.
- 대학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보통신

- 이동전화 번호유지제 시행=가정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동전화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011·017 가입자는 1월1일, 016·018 가입자는 7월1일, 019 가입자는 2005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 시내전화 번호유지제 시행 지역 확대=3월부터는 인천과 대구, 7월부터는 부산, 9월부터는 서울로 도합해 모든 지역에서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시내전화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출처》 한겨레 2003.12.29(월))

명절을 앞두고 물가인정 특별대책 기금운영

시에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래와 같이 물가인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 간: 2004. 1. 12 ~ 1. 24(13일간)

- 내 용: • 위조상품 유통여부 확인
-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 선수품 수급 및 가격통한 일일점검
- 매점매석, 담합, 불법계량행위 점검
- 불공정 상거래 행위 점검

조상의 땅을 무료로 찾아 드립니다

전국 전산온라인망을 이용하여 부모 등 조상의 땅을 본인 또는 상속자가 적적 능본, 호적능본,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지고 신청하면 조상의 땅을 찾아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지적과 ☎540-2262로 하면 됩니다.

2004년도 국비교육생모집

구분	교육과정	교육내용	관련자격증
정 부 위 탁 훈 련	전기공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안전, 전력전자, 자동제어	전기기기 기사사 전기공사 기사사 승강기보수 기사사
	산업설비	가스, 냉동설비 건축배관, 보일러설비 용접(전기, 가스, 특수)	용접/건축배관 공조냉동기계/온수온열 보일러취급/보일러시공
	실내디자인	역계획, CAD 건축일반, 건축재료 실내건축디자인제도	내선건축 기사사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도장건축제도
	CAD (전산응용프로그래밍)	CAD이론, CAM 2D CAD, 3D CAD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컴퓨터그래픽스 정보기기운용
	기안기사 냉동기계	공기조화설비 건축배관설비 냉동기계, 동력배선	공조냉동기계 기사기사사 보일러시공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전기이론, 전기설비 자동차용, 승강기	전기기사, 승강기 전기기사, 전자기사

- 교육기간: 1년 과정 (2004. 3. 1 ~ 2005. 2. 25) ☞ <http://www.dugwoo.or.kr>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2. 직업훈련생입학원서 3. 반영합사진 3매 4. 우체국통장사본 2매 5. 주민등록증 1통
- 입학자격: 1. 취업/창업 자격증취득학원(15세이상) 2. 대학졸업예정 진학희망자
- 교육생특전: > 교육비 전액무료 > 교육기간 중 교통비(월50,000원) 지급 > 우선직종수당 월200,000원(일반인) 지급 외 (전화로 문의)
- 원서접수: 2004년 1월 5일 ~ 2004년 2월 10일
- 면접 일: 2004년 2월 11일 10:00 > 본교 교학처(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전안병행 500M)
- > 최이치면 - 최이교유아정세터(보조지 7면 행정리 2층)
- > 아산지역 - 아산고용안전센터(경찰서 옆 신협B/D 3층)

덕우직업전문학교 문의전화 (041)542-8700



설날

설의 유래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서(隨書)를 비롯한 중국 사서들에는 신라인들이 월일(元日) 아침에 서로 하례하며 월이 잔치를 베풀어 조신을 모아 화연하고 이날 일월신을 배례한다고 기록돼 있고 삼국사기 제사편에 백제 고이와 5년(238) 정월에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으며, 해제왕 2년(287) 정월에 신조(동면)와 사령에 배안 하례다하여 오늘날 신년과 유사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설과 정월 대보름, 삼짇날, 팔관회, 한식, 단오, 추석, 풍류, 동지를 9대 명절로 삼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이라 하여 이미 이시대에는 설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명절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설날의 풍속

- **차례** : 정월초하루 아침 일찍 각 가정에서 대청 마루나 큰 방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속.
- **세배** : 설날 차례를 마친후 가족 및 이웃 친척과 이웃 어른께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림.
- **설빔** : 정월 초하루 아침에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풍속.
- **떡질** : 설날 일가와 친척들과 친구 등을 만났을 때, 그사람의 신분, 장유의 차이에 따라 소원하는 것으로 서로 축하하는 말을 나눔.
- **복조리** : 설날 아침, 아침 또는 선달/그믐날 밤 자정이 지나서 대나무로 만든 복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 두는 풍속. 복조리가 뚝 떨어진 것은 기쁘고 그 해의 행운을 조리로 알아 취한다(함).
- **어정기꽃기** : 어른과 아이, 동가족의 신발을 방 안에 놓아놓고 작은 풍속으로 설날 밤에 아광이라는 글씨나 한가위, 봄여와 사람들의 신을 신어서 저녁 밤에 모르면 신구(신)는 속설이 있는데, 만일 신을 잃어버리면 신 일자는 그해 운수가 나쁘다 하여 생긴 풍속).
- **정참** : 새해 첫새벽 거리로 나가 비탈도 없이 돌아 다니다가 사람의 소리든 짐승의 소리든 처음

들리는 그 소리로 그해 1년 중 자기의 신수를 짐치는 풍속(예- 까치소리 행운등)

전통놀이



▲ 널뛰기



▲ 윷놀이

세시음식



▲ 다시



▲ 떡국



▲ 신선로



▲ 약과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의 유래

조선후기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설달그믐날의 수세하는 풍속과 같이 온집안에 등불을 켜 놓고 밤을 세운다는 기록이 보이며 농경을 기본으로 하였던 고대사회로부터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한다.

정월대보름의 풍속

- **동제** : 가가호호 성의껏 제비를 마련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제관을 선출하여 풍요로운생산과 마을이 평안을 축인함
- **줄다리기** :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놀이로 벗짚을 이용하여 압축과 수축을 만든후 마을단위 혹은 군단위로 양원으로 나누어 줄을 당기게 하여 압축이 승리하면 풍년이 든다고 믿음
- **지신밟기** : 풍물패가 집집마다 들어 흥겹게 놀아주고 축원에 주는 것 지역에 따라 마당밟기, 매귀, 걸립등으로 불림
- **부스럼 깨기** : 밤, 호두, 땅콩등을 깨물며 일년 열 두달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축원함
- **더위팔기** : 아홉달의 사립을 보낸 심대령 이름을 부르며 '내 더위 사가'라고 하여 더위를 팔면

그해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풍속

- **액연떡무기** : 연에다 액 혹은 송액등을 써서 연을 날리다가 해질 무렵에 연줄을 끊어 하늘로 날려 보냄으로써 액막이를 하는 풍속



서 쌓아 놓고 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불을 지른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더불어 달을 맞이하고 쥐불놀이, 햇불싸움도 함

- **약방** : 해창병과 반 대추, 꿀, 기름, 간장등을 섞어서 함께 쪄 후 잿을 박은 약방을 준비하여 즐기는 풍속으로 오곡밥, 잡곡밥, 찰밥, 농사밥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 **귀밝이술과 타성(他姓)밥 먹기** : 장수환잔을 매우 기쁘고 미치면 귀가 밝아진다고하여 이를 귀밝이술이라하고, 세집 이상의 다른 성을 가진집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다고 하며 아홉 번의 밥

을 먹어야 좋다 하여 틈틈이 여러번 밥을 먹는 풍속

- **그밖에도** 벋가릿대세우기, 복토출치기, 용알뜨기, 다리밟기, 곡식안내기 등이 있다.

우리지역 전통놀이 체험하기

현충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설 연휴기간(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동안 우리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현충사 정문에 널뛰기와 윷놀이, 굴림쇠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승경도를 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준비해 놓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영인면에서는 신봉2리를 주축으로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굿 행사를 개최하여 사라져 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재현하고 전승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영인면사무소 (전화 540-2607)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